

국 어

[강평 및 해설 : 강경옥 교수]

<7급 총평>

2월 23일 서울시 국어는 아주 어렵지도 아주 쉽지도 않게 이상적 난도로 출제되었다. 2013년부터 문제를 공개해 온 서울시 문제는 이제 황당하고 비이성적인 문제는 사라졌고, 이성적이고 예상 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문제 구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국어규범'과 관련된 것이 8문항인데, 지난 서울시보다 3문제 줄었다. '국어의 문장성분, 음운 변동, 높임법, 단어의 짜임새, 형태소의 교체, 조사의 성격'등 대체로 예상한 영역에서 출제되었다. 어휘의 형성 체계와 피동문과 사동문 에 대한 설명을 묻은 문제가 약간 까다로웠다. 이 영역은 공부한 학생이라면 한 문제도 놓쳐서는 안 되는 영역이므로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을 잘 숙지하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한문을 포함한 '어휘'는 지난해보다 1문제 많은 5문제가 출제되었다. '한자성어, 나이, 어의의 변화'등 모든 내용이 수업 시간에 다룬 것이라 그리 어렵지 않았다. 순수 한자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한문이 출제되었으나 평이한 문장이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어휘는 언제나 학습 부담이 많은 영역이다. 모든 어휘를 외울 수는 없다. 수업시간에 강조한 주요 어휘를 바탕으로 시험까지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겠다는 학습 태도가 필요하다. '읽기'는 서울시답게 지문은 짧고 내용도 쉬웠다. 2문제 모두 득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읽기영역이 거의 출제되지 않는 것은 국가직과 다른 서울시만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서울시가 아닌 직렬을 공부하는 학생이 이 시험을 바탕으로 읽기 영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문학'은 '황동규와 구상의 시가 출제되었고, 규중칠우쟁론기, 언문' 등이 출제되었다. 눈에 띄는 것은 작년 시험과 동일한 시인 즉 구상과 황동규의 작품이 출제된 것이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인데, 출제 위원이 동일한 사람으로 사려된다. 그리고 작품을 주고 시대순으로 배열하라는 문제는 서울시만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또 '이응태 묘(안동)에서 출간된 언문'이 제시문으로 출제된 것이 이색적이다. 문학은 모든 직렬에서 출제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므로 수험생은 수업시간에 언급한 문학의 기초감상법을 잘 익혀 어떤 작품이 나와도 여유롭게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난도에 따라 문제를 구분해 보면, 난도 상 2문항, 난도 중 13문항, 난도 하 5문항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실수를 감안하더라도 9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생각된다.

01. 효(孝)와 관계된 사자성어가 아닌 것은?

- ① 斑衣之戲 ② 斷機之戒
- ③ 陸續懷橘 ④ 望雲之情

답) ②. [난도 중, 한자성어] - 예상한 문제 유형
斷機之戒(단기지계): 학문을 중도에서 그만두면 짜든 베의 날을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없음을 경계한 말.

<오답 콕>

- ① 斑衣之戲(반의지희): 늙어서 효도함을 이르는 말. 중국

초나라의 노래자가 일흔 살에 늙은 부모님을 위로하려고 색동저고리를 입고 어린이처럼 기어 다녀 보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③ 陸續懷橘(육적회굴): '육적이 굴을 가슴에 품다'라는 뜻으로, 지극한 효성을 비유하는 말이다. 중국 삼국시대의 오나라 사람 육적에 관련된 고사에서 유래했다.

④ 望雲之情(망운지정):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

02. 의미관계와 단어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의 관계(synonymy) - 근심:시름
- ② 반의 관계(antonymy) - 볼록:오목
- ③ 상하 관계(hyponymy) - 할아버지:손자
- ④ 부분 관계(meronymy) - 코:얼굴

답) ③. [난도 하, 한자성어] - 예상한 문제 유형
서로 관계되는 두 실체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상대 관계(상대 반의어)에 해당한다.

03. <보기>의 음운 변동 사례 중 옳은 것은?

<보기>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 '집일[집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 '닭만[당만]'은 탈락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 '뜻하다[뜨타다]'는 축약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 '말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2개 증가하였다.

- ① ㉠ ② ㉡
- ③ ㉢ ④ ㉣

답) ①. [난도 하, 음운 변동] - 예상한 문제 유형
집일: 집닐(ㄴ첨가) → 집닐(교체), 음운이 하나 늘었다.

<오답 콕>

- ② 닭만: 닭만(ㄹ 탈락) → 당만(교체)
- ③ 뜻하다: 뜯하다(교체) → 뜨타다(축약)
- ④ 말는: 만는(교체) → 만는(교체), 음운의 개수는 같다.

04.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 ① 지금도 나는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난다.
- ② 그 학생이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
- ③ 바로 옆집에 삼촌이 사신다.
- ④ 5월에 예쁜 꽃을 보러 가자.

답) ②. [난도 중, 문장성분] - 예상한 문제 유형
‘아주’는 ‘새 사람이 되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다.

<오답 복>

- ① ‘말씀’을 수식하는 ‘관형어’
③ ‘옆집’을 수식하는 ‘관형어’
④ ‘꽃’을 수식하는 ‘관형어’

05. <보기>를 참고하여 문장에 실현되는 높임법을 분석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국어의 높임법에는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높임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의 (예)와 같이 이들 높임법이 문장에 나타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와 ‘-’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영수가 동생에게 과자를 주었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 ①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다.
(+주체, -객체, -상대)
- ② 영희가 할머니께 과자를 드렸다.
(-주체, +객체, +상대)
- ③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 ④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과자를 드리셨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답) ②. [난도 중, 높임법] - 예상한 문제 유형
영희가 할머니께 과자를 드렸다.
(-주체, +객체, -상대)

06. <보가>는 두보의 시 「곡강(曲江)」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보기>

조정에서 돌아오면 봄꽃을 저당 잡히고,
매일 강어귀에서 만취되어 돌아오네.
술빛은 늘 가는 곳마다 있건만,
인생 ()은 예로부터 드물구나.
꽃 속으로 날아드는 나비는 그윽하고,
물 위로 콩지를 달을 듯 나는 잠자리는 유유하네.
내 전하고 푼 말은 풍광과 함께 흐르노니,
잠시나마 서로 즐기고 부디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라네.

- ① 오십 ② 육십
③ 칠십 ④ 팔십

답) ③. [난도 하, 한시-어휘] - 예상한 문제 유형
· 人生七十古來稀 (인생칠십고래희)

<미소 곡>

朝回日日典春衣 (조회일일전춘의)
每日江頭盡醉歸 (매일강두진취귀)
酒債尋常行處有 (주채심상항처유)

人生七十古來稀 (인생칠십고래희)
穿花蛺蝶深深見 (천화협접심심견)
點水蜻蜓款款飛 (점수청정관관비)
傳語風光共流轉 (전어풍광공류전)
暫時相賞莫相違 (잠시상상막상위)

07.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이원론에 따르면 마음은 몸과 같이 하나의 대상이며 몸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실체이다. 독립된 존재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다. 몸이 마음 없이도 그리고 마음이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실체이원론이며, 이 이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통상 데카르트가 언급된다. 기계와 이성이 서로를 배제한다는 생각은 이원론적 사고의 한 유형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두뇌를 포함한 몸은 그것의 크기, 무게, 부피, 위치 등의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마음은 물리적 속성을 결여한 비물리적 실체이다. 이성을 가지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실체이다.

- ① 이원론은 물리적 실체와 마음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겠군.
- ② 이원론은 몸이 비물리적 실체일 수 있다고 보겠군.
- ③ 이원론은 마음이 없는 몸이 가능하다고 보겠군.
- ④ 이원론은 몸이 없는 마음이 불가능하다고 보겠군.

답) ③. [난도 중, 읽기] - 예상한 문제 유형

·실체 이원론: 몸이 마음 없이도 그리고 마음이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08. 주어진 단어를 의미를 가진 요소들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었을 때 그 요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파김치 ② 짜임새
③ 주름살 ④ 지름길

답) ②. [난도 중, 형태소] - 예상한 문제 유형
· 짜-이-ㅁ-새

<오답 특>

- ① 파-김치 ③ 주름-살 ④ 지르-□-길

09.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과 뜻이 가장 잘 통하는 속담은?

- ① 첫술에 배부르랴.
- ② 내 코가 석 자다.
- ③ 공든 탑이 무너지랴.
- ④ 바늘허리 실 매어 못쏜다.

답) ④. [난도 중, 한문] - 예상한 문제 유형

· 欲速則不達(욕속부달) 見小利則大事不成(견소리즉대사불성): 서두르면 미칠 수 없고, 작은 이익에 욕심내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10. <보기>에서 주된 표현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은?

<보기>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 ① 사소함
- ② 괴로움
- ③ 기다림
- ④ 생각함

답) ①. [난도 중, 현대시] - 예상한 문제 유형
해가 지고 바람 부는 일처럼(언제나) 사소한 일(그대를 생각함): 한시도 그대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가 된다. 즉 이 ‘사소함’은 반어법이 되는 것이다.(황동규-즐거운 편지)

11. <보기>와 시대적 배경이 같은 작품은?

<보기>

하꼬방 유리 딱지에 애새끼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춰라.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 ① 김승옥의 「무진기행」
- ② 황석영의 「삼포가는 길」
- ③ 이문구의 「우리동네 김씨」
- ④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

답) ④. [난도 중, 현대시-문학사] - 예상한 문제 유형
구상의 「초토의 시」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했다.

<오답 콕>

① 1960년대

② 1970년대

③ 1970년대

12. 어휘의 형성 체계가 다른 것은?

- ① 손쉽다
- ② 맛나다
- ③ 시름없다
- ④ 남다르다

답) ④. [난도 상, 단어] - 예상한 문제 유형
남(과) 다르다 - 부사어 + 서술어

<오답 콕>

① 손쉽다: 손(이) 쉽다 - 주어+서술어

② 맛나다: 맛(이) 나다 - 주어+서술어

③ 시름없다: 시름(이) 없다 - 주어+서술어

13. <보기>의 작품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가)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나) 생사의 길은 /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고 / 나는 간다는 말도 / 못다 이르고 가느냐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 한 가지에 나고 서도 /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 아으, 미타찰(彌陀刹) 에 만날 나 / 도(道) 닦아 기다리리.

(다) 翩翩黃鳥
雌雄相依
念我之獨
誰其與歸

(라)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흔 님 추풍(秋風) 낙엽(落葉)에 저도 날 생각누가 천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흐노매

- ① (가)-(다)-(나)-(라)
- ② (가)-(다)-(라)-(나)
- ③ (다)-(가)-(나)-(라)
- ④ (다)-(나)-(가)-(라)

답) ④. [난도 중, 고전문학사] - 예상한 문제 유형
(가): 고려 - 정지상의 「송인」
(나): 신라 - 향가 「제망매가」
(다): 고구려 - 유리왕 「황초가」
(라): 조선 - 계량의 시조

14.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형태소의 교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형태소의 교체는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눌 수 있다. 자동적 교체는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교체를 말하며, 비자동적 교체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는 교체를 말한다.

(가) 알-: 알+는 → [아:는]

(나) 안-: 안+고 → [안:꼬]

(다) 아름답-: 아름답+은 → [아름다운]

[ㄹ] 먹-: 먹+는 → [멍는]

- ① (ㄱ)는 국어에 ‘ㄱ’과 ‘ㄴ’이 연속될 때 ‘ㄱㄴ’이 함께 발음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용언 어간의 종성 ‘ㄱ’이 탈락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 ② (ㄴ)는 국어에 ‘ㄴ’과 ‘ㄱ’이 연속될 때 ‘ㄱ’이 경음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어미 ‘-고’는 [꼬]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 ③ (ㄷ)는 국어에 ‘ㅁ’과 ‘은’이 연속될 때 ‘븐’이 아니라 [운]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어미 ‘-은’이 [운]으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 ④ (ㄹ)는 국어에 ‘ㄱ’과 ‘ㄴ’이 연속될 때 ‘ㄱ’이 비음 ‘ㅇ’으로 발음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규칙은 아니므로 비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답) ①. [난도 중, 음운현상] - 예상한 문제 유형
② 어간 받침 ‘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로 발음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외가 있는 것으로 비자동 교체에 해당한다.
③ 모든 ‘ㅁ’ 뒤에 ‘은’이 [운]으로 발음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ㅁ’ 불규칙에 따라 발음된 것이다. 비자동 교체에 해당한다.
④ ‘ㄱ’과 ‘ㄴ’이 연속될 때 ‘ㄱ’이 비음 ‘ㅇ’으로 발음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므로 자동 교체의 예다.

15.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양우(兩友)의 말이 불가하다. 진주 열 그릇이나 켄 후에 구슬이라 할 것이니. 재단(裁斷)에 능소능대(能小能大) 하다 하나 나 곧 아니면 작의(作衣)를 어찌하리오. 세누비 미누비 저른 술 긴 옷을 일우미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 척 부인이 자혀 내고 교두 각시 버혀 낸다 하나 내 아니면 공이 없으려든 두 벗이 무삼 공이라 자랑하냐뇨.”

- ① 서술자는 ‘세요 각시’, 즉 ‘바늘’이다.
- ② 자기 자랑을 하기에 앞서 타인의 공을 인정하고 있다.
- ③ ‘능소능대(能小能大)’는 몸의 크기가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척 부인’과 ‘교두 각시’는 각각 ‘자’와 ‘인두’를 가리킨다.

답) ①. [난도 중, 고전수필] - 예상한 문제 유형
② 타인의 공보다는 자신을 자랑한다.
③ 자유자재로 옷을 만드는 재주를 의미한다.
④ 척부인: 자, 교두 각시: 가위

16. <보기>에 제시된 문장은 주동문과 사동문 그리고 능동문과 피동문이다. 다음 중 사동문과 피동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내가 책을 읽었다.
(나) 선생님께서 나에게 책을 읽히셨다.
(다) 우리가 산을 뽀니다.
(ㄹ) 산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 ①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인 사동사와 피동사는 모두 파생어이다.
- ② 사동문과 피동문에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되는 문장 성분이 필수적으로 제시된다.
- ③ 사동문과 피동문에 나타난 부사어는 각각 주동문의 주어와 능동문의 주어이다.
- ④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전환될 때나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전환될 때 서술어의 자릿수에 변화가 나타난다.

답) ②. [난도 상, 문장] - 예상한 문제 유형
‘주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이다. (라)는 피동문인데 이 문장의 주어는 ‘산’이다. 그런데 이때 주어는 필수적으로 제시되었지만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태의 주체가 된다.

<오답 콕>
① 읽히다, 보이다: 파생어
③ 내가 → 나에게, 우리가 → 우리에게
④ (가): 내가, 책을 (2자리 서술어)
(나): 선생님께서, 나에게, 책을(3자리 서술어)
(다): 우리가, 산을 (2 자리)
(라): 산이(1 자리)

17. <보기>의 어휘들은 통시적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여 준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늑: ‘사람평칭’ → ‘남자의 비칭’
(나) 겨레: ‘종친, 친척’ → ‘민족, 동족’
(다) 아침밥 > 아침
(ㄹ) 맛비 > 장맛비

- ① (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축소된 예이다.
- ② (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확대된 예이다.
- ③ (다)는 형태의 일부가 생략된 후 나머지에 전체 의미가 잔류한 예이다.
- ④ (ㄹ)는 형태의 일부가 덧붙여진 후에도 전체 의미가 변하지 않은 예이다.

답) ④. [난도 중, 어휘] - 예상한 문제 유형
‘맛비’는 ‘장마’의 옛말이다. 그런데 ‘장맛비’는 ‘장마에 내리는’ 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어의가 축소된 예에 해당한다.
·장마: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또는 그 비
·장맛비: 장마 때에 오는 비

18. 밑줄 친 조사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인생은 과연 뜬구름과 같은 것일까?
- ② 누구나 영수하고 친하게 지낸다.
- ③ 고등학교 때 수학과 영어를 무척 좋아했다.
- ④ 나와 그 친구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다.

답) ③. [난도 중, 조사] - 예상한 문제 유형
'과'는 접속조사.
·과: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오답 콕>
① 과: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② 하고: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④ 와: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격 조사

19.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현대어 해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자네 상해 ㉠날드려 날오디 돌히 머리 세도록 사다가 흙씩 죽자 하시더니 엇디하야 나를 두고 자네 몬져 가 시는 날하고 죽식하며 뉘 괴걸하야 엇디하야 살라 하야 다 더디고 자네 몬져 가시논고 자네 날 향해 막으몰엇디 가지며 나는 자네 ㉡ 향히 막으를 엇디 가지던고 의양 자네드려 내 날오디 혼디 누워서 이 보소 남도 우리 마디 서러 애엿쎄 녀겨 스랑 하리 남도 우리 마튼가 하야 자네드려 니르더니 엇디 그런 이를싱각디 ㉢ 아녀 나를 브리고 몬져 가시논고 자네 ㉣ 여히 고 아므려 내 살 세 업스니 수이 자네 혼디 가고져 하니 날 드려 가소

- ① ㉠ 나를 따라서 ② ㉡ 향하여
- ③ ㉢ 아니하여 ④ ㉣ 여의고

답) ①. [난도 중, 고전문학 - 어휘] - 예상한 문제 유형
·날드려: 나에게
이응태 묘(안동) 출토된 언문

<미소 콕>

당신 늘 나에게 말하기를 돌이 머리 세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하여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시는가요. 나하고 자식은 누구에게 의지하여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시는 가요. 당신 날 향해 마음을 어떻게 가졌고 나는 당신 향해 마음을 어떻게 가졌던가요. 늘 당신에게 내가 말하기를 함께 누워서 이보소 남도 우리 같이 서로 어여빠 여기고 사랑할까. 남도 우리 같을까 하며 당신에게 말했는데 어찌 그런 일은 생각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갔나요. 당신을 여의고 아무래도 내 살 수가 없어 빨리 당신에게 가고자 하니 나를 데려가세요

20. <보기>의 ㉠-㉣에 들어가기에 가장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보기>
스토리는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된 사건의 서술이다.
(㉠)도 사건의 서술이지만 인과관계에 역점을 둔다.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는 스토리이지만, '왕이 죽자 왕비도 슬퍼서 죽었다'는 (㉠)(이)다. 시간적 순서는 마찬가지로 인과의 감각이 첨가된다. 또한 '왕비가 죽었다. 그러나 왕의 죽음 때문이라고 알게 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비를 간직한 (㉠)(이)며, 고도의 전개가 가능한 형식이다. 그것은 시간의 맥락을 끊고 한계가 허락하는 한 스토리에서 비약시키고 있다. 왕비의 죽음을 생각할 때 만약 그것이 스토리가 될 경우엔 우리는 '(㉡)'하고 물을 것이며, (㉠)의 경우엔 '(㉢)'하고 물을 것이다.

- | ㉠ | ㉡ | ㉢ |
|-------------|--------|---------|
| ① 플롯(plot) | 왜? | 그 다음 엔? |
| ② 플롯(plot) | 그 다음엔? | 왜? |
| ③ 테마(theme) | 언제? | 왜? |
| ④ 테마(theme) | 그 다음엔? | 왜? |

답) ②. [난도 중, 읽기] - 예상한 문제 유형
·스토리: 일정한 줄거리를 담고 있는 말이나 글(순서)
·플롯(≒구성): 문학 작품에서 형상화를 위한 여러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배열하거나 서술하는 일(인과)